

# 제주도 방언의 인용문 연구\*

김 미 진\*\*

- I. 서론
- II. 선행 연구와 인용문의 구성 요소
  - 1. 선행연구
  - 2. 인용문의 구성요소
- III. 제주도 방언 인용문의 실현 양상
  - 1. 직접 인용
  - 2. 간접 인용
  - 3. 자유 인용
- IV. 세대별 인용문 사용 양상
  - 1. 평서문
  - 2. 의문문
  - 3. 명령문
  - 4. 청유문
- V.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제주도 방언의 인용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그 변화 과정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방언은 구어로 실제 생활에서 사용될 때 그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실제 발화 상황에서 사용되는 인용문과 인용 표지에 대해 그 형태들을 확인하고 그 기능과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주도 방언의 발화에서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라는 두 가지 형태만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707437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mijin3228@naver.com)

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인용문이 등장한다. 즉, 피인용문을 실제 발화하는 것처럼 그대로 인용하는 직접 인용과 인용 화자의 관점에서 간접화하는 간접 인용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인용문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용을 자유 인용으로 분류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로운 형태의 인용문을 선호하는 것은 인용자가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피인용문과 객관적인 거리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발화가 선행되고 이 발화를 전달하는 인용문이 후에 만들어진다고 본다면 직접 인용이 먼저 만들어지고 간접 인용은 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자유 인용은 이 두 인용 형태의 그 중간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제주도 방언의 인용문은 이전에도 표준어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주목받아왔다. 특히 문장종류별로 중화된 종결어미와 인용 표지가 축약되어 인용문을 만들지 않고 다양한 종결어미에 인용 표지가 바로 결합되는 특징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현상은 노년층의 제주도 방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종결어미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유지했던 기존의 제주도 방언 인용문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다양성이 없어지는 특징을 보였다.

주제어 : 제주도 방언, 인용문, 인용 표지, 간접 인용, 직접 인용, 세대별 변화

## I. 서론

인용은 다른 사람이 말했던 것이나 생각, 자신이 예전에 혼자 말했던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발화되는 상황에 앞서서 이전의 발화나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원발화나 원생각을 전달자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과정을 인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발화나 생각을 사물처럼 대상화하여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다. 문장이지만 하나의 단위처럼 인식하여 인용 표지를 결합한다. 하나의 인용문이 만들어지려면 전달되는 발화의 화자와 청자, 다시 그것을 전달하는 화자와 청자가 각각 있어야 한다. 전달되는 피인용

문과 인용문이 다른 화자에 의해 발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인용 동사, 이들을 연결하는 인용 표지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인용문의 형태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다. 직접 인용은 원래 발화 상황을 재현하여 화자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려는 방식이고 간접 인용은 이를 인용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전달자의 입장에 따라 바뀌서 전달하는 방식이다. 직접 인용이 간접 인용으로 바뀔 때는 피인용문 동사의 시제, 서법, 인칭대명사, 지시어 등이 인용 화자의 관점에 맞추어 재조정된다. 표준어의 인용문에서는 피인용문의 문장 종류에 따라 인용 표지의 결합 형태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인용문은 독립된 두 개의 문장이 결합된 복합문으로 두 문장을 연결하는 표지를 인용어미라고 보기도 하고 인용조사라고 하기도 한다. 학교 문법에서는 인용격조사로 설명하고 있으나 크게 보면 인용 표지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인용 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인용문의 종류와 구조를 살펴보고 그 실현 양상과 세대별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주도 방언 인용문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인용 표지이므로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인용 표지의 사용 양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직접 인용문의 경우 인용 표지가 생략될 수도 있지만 간접 인용의 경우 인용 표지를 생략하기 힘들다. 또한 인용문의 제약이 표준어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높임법이 남아있다거나 인용 표지가 생략되지 않는 등의 제주도 방언만의 특징도 있다. 이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알아보려고 한다.

제주도 방언의 인용문 특징과 출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구술 채록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도 전 지역을 조사하여 구술 채록, 표준어 대역한 『제주어 구술 자료집』 36권 중에서 필자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였던 5개 마을의 구술자료<sup>1)</sup>를 분석하였다.

1) 『제주어구술자료집』 2, 조천읍 선흘1리, 2017.

『제주어구술자료집』 11, 조천읍 함덕리, 2018.

『제주어구술자료집』 13, 성산읍 삼달리, 2018.

『제주어 구술 자료집』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조사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와 표준어 자료를 함께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인용문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인용문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하고 세대별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직접 면접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제주도 방언을 구사하는 80대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을 때 그 다음 세대가 되는 50대가 사용하는 언어, 다시 30년 후인 20대가 사용하는 인용문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는 표준어와의 접촉에 의한 언어의 변화가 음운, 어휘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통사론적 측면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용문의 형태가 청년층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선행 연구와 인용문의 구성 요소

### 1. 선행 연구

표준어에서 인용문에 대한 연구는 인용문의 개념과 특성을 살피는 연구와 구성 방식에 대한 연구, 인용 표지의 공시적 변화와 통시적 축약, 융합 현상까지 다양하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지역 방언에서의 인용문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며 그나마 경상도 방언과 제주도 방언에서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주도 방언의 간접 인용문에 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특이한 인용문의 양상에 주목하였다. 성낙수<sup>2)</sup>는 내포문의 종결형에 따라 서술형,

『제주어구술자료집』 25, 남원읍 태흥리, 2019.

『제주어구술자료집』 33, 대정읍 인성리, 2020.

2) 성낙수, 「제주도 방언의 간접인용문 연구」, 『서원대학논문집』 9, 서원대학교,

의문형, 청유형으로 나누고 내포문의 동사구와 분리되지 않는 보문자와 완형보문의 양상을 제시하였다. 그 후 제주도 방언에서 인용 표지에 초점을 두고 그 형태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강정희<sup>3)</sup>는 인용구조를 분석하여 직접 인용과 인용 표지 ‘-ㄴ/-ㅇ’을 결합시키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형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간접 인용의 경우 내포문의 문장어미의 상대존대가 중화되지 않는데 이는 통사적인 제약이 아니라 화용론적 제약이라고 했다. 표준어의 ‘-이라고’, ‘-고’에 대응하는 제주도 방언의 요소로 ‘-ㄴ/-ㅇ’을 들고 자체적으로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고영진<sup>4)</sup>은 인용 표지의 형태를 ‘-ㄴ/-ㅇ’이 아니라 ‘-엔’으로 보고 직접 인용보문의 간접화 과정을 설명했다. 상대 존대 어미가 중화되지 않아 간접화한 내포문의 문장 어미가 복잡하고, 인용보문자와 간접화한 어미가 축약하는데 피인용문의 끝 모음에 따라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제주도 방언의 인용문이 종결어미와 인용어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문장의 종류에 따른 그 결합양상을 살핀 연구가 뒤따랐다. 정승철<sup>5)</sup>은 다양한 종결어미 형태가 ‘ᄃ라’체의 종결어미로 중화되고 여기에 인용어미 ‘엔’이 결합된다고 보았다. 실제 제주도 방언의 발화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김미진<sup>6)</sup>은 실제 조사한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 방언의 인용 표지 ‘-엔/엥’의 문법화 과정을 유추하여 중세국어 ‘ᄃ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김지홍<sup>7)</sup>은 한국구비문학 대계의 제주도편 자료를 중심으로 인용구문과 유사구문의 여러 가지 모습을 살폈다. 그 결과 ‘-이엔 말#ᄃ다와 ‘-고 말ᄃ다의 형상을 지닌 구문이 관찰된다면서 전자는 ‘말이 생략됨으로써 ‘-이엔 ∅ ᄃ다로 쓰이고 좀 더 융합된 모습

1980.

- 3) 강정희, 「제주방언의 인용문 연구-피인용문의 문장어미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4, 이화여대 이화어문학회, 1981.
- 4) 고영진, 『제주 방언의 인용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84.
- 5) 정승철, 「제주도 방언 어미의 형태음소론-인용어미를 중심으로」, 『애산학보』 20집, 애산학회, 1997.
- 6) 김미진, 「제주 방언의 인용 표지 연구」, 『영주어문』 41, 영주어문학회, 2019
- 7) 김지홍, 「제주 방언의 인용 구문과 매개변항」, 한글 80권 제4호, 한글학회, 2019.

을 보여 ‘-인∅ㅎ다’로 쓰이며 ‘-은 ∅ㅎ다’처럼 실현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동안 제주도 방언의 인용문에 대한 연구는 표준어와 다르게 나타나는 인용 표지에 관심을 두고 이를 어떻게 분리해 낼 것인지 혹은 문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 2. 인용문의 구성 요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은 의미와 형식면에서 구분된다. 직접 인용은 남의 말이나 글 등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라면 간접 인용은 남의 말이나 글 등을 인용하되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옮기는 것이다. 형식적인 면에서 직접 인용은 인용부호를 사용하며 간접 인용은 인용 표지를 통해 안은문장에 완전히 내포된다. 제주도 방언에서 인용문에 나타나는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인용을 하고자 할 때는 피인용문, 인용 표지, 인용 동사가 필요하나 인용 표지나 인용 동사가 생략된 형태도 등장한다.
- ② 피인용문에 상대높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보통이나 낮춤의 어미로 바뀌기도 한다.
- ③ 피인용문의 인칭대명사가 인용화자 관점에 맞춰 바뀌는 것이 보통이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 ④ 인용화자의 관점이 반영된 간접 인용에서 피인용문의 종결어미가 인용 표지와 결합할 때 문장 종류에 따라 중화되지 않고 종결어미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나 중화되기도 한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제주도 방언의 인용문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으나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서 규칙성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생략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며 간접화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 이는 단지 제주도 방언만이 아니라 구어체의 순간적

이며 가변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방언의 인용문의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구성 요소와 제약을 알아 보겠다.

### 1) 발화자와 청자

인용문에서 발화자와 청자는 원발화자와 원청자, 인용화자와 인용청자로 세분할 수 있다.

실제 발화에서는 원발화자와 원청자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담화상에서 문맥적으로 정보가 주어졌을 경우 생략도 가능하다. 또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인용화자와 인용 청자는 강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어는 문장성분의 생략이 자유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장 성분의 생략은 원래의 말을 유추하여 복원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구어인 제주도 방언에서도 발화자와 청자 생략은 보편적이며 복원 가능하다.

- (1) ㄱ. 나는 살았지만은이 부모를 어떻 강 만남 말을 헐 거냐 헐 막 그때 군인 하나 경 울어났젠 허메.(나는 살았지만은 부모를 어떻게 가서 만나서 말을 할 거냐 해서 막 그때 군인 하나 그렇게 울었다고 해.) <태흥>
- ㄴ. 옛날은 올레 진 집이 동녕바치 안 들어온덴 허주게.(옛날은 ‘올레’ 긴 집에 거지 안 들어온다고 하지.) <삼달>
- ㄷ. 근처에 아기어멍이라도 시민 우리 집이 비 오라가민 장항 더꺼도렌 곤고(근처에 아기 어머니라도 있으면 우리집에 비 오면 장독 덮어 달라고 말하고) <합덕>
- ㄹ. (며느리가) 어머니 이제랑 (절에 등 싸는 거) 설러 붙센 경 허곤테 설러 붙언.(어머니 이제는 그만두세요 그렇게 하길래 그만뒀 버렸어.) <인성>

(1 ㄱ)은 원발화자는 ‘나(군인)’ 원청자는 ‘태흥리 주민’, 인용화자는 ‘제보자’, 인용청자는 ‘조사자’로 모두가 다른 사람이 된다. (1 ㄴ)은 속담이나 관용 표현을 전달하는 상황으로 원발화자와 원청자는 일반 사람들이다. 여기서 원청자인 사람들 속에 제보자가 포함될 수도 있다. (1 ㄷ)은

원발화자와 인용화자가 제보자로 동일인물이고 원청자는 ‘아기 어멍’, 인용청자는 조사자이다. (1 리)은 원청자와 인용화자가 동일인인 제보자이며 원발화자는 제보자의 며느리다. 네 문장 모두 인용화자와 인용청자는 제보자와 조사자로 공통적이지만 글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 2) 인용 표지

넓은 의미의 인용 표지는 인용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모든 표시나 특징으로 따옴표, 휴지, 인용 조사 등을 들 수 있다. 큰따옴표는 직접 인용에서 나타나며 휴지는 담화 상황에서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인용 표지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것은 인용 조사다. 표준어의 인용조사는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이라고, -하고’와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고’가 있다. 구어의 직접 인용에서 ‘라고’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간접 인용에서도 ‘라고’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조사로 볼 것인지 어미로 볼 것인지 논란이 있으나 여기서는 보다 넓은 개념인 인용 표지라고 하겠다. 제주도 방언의 인용 표지는 ‘-엔/앵’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하고’와 같은 의미의 ‘하여’에서 ‘하-’가 탈락하여 ‘-여’만 남아 이것의 방언형인 ‘연’이 ‘엔/앵’으로 변화하여 인용 표지가 만들어졌다<sup>8)</sup>고 볼 수 있다. 피인용문의 종결 어미 ‘-다, -키여, -라, -저, -나, -냐’ 등에 ‘엔’이 결합하여 각각 ‘-덴, -켄, -렌, -젠, -넌, -넨’ 등으로 실현된다. 인용 표지가 생략된 형태도 등장하는데 이는 직접 인용에서 인용문임을 문맥상 알 수 있을 때 가능하다.

- (2) ㄱ. 틀은이 소굽에 씨 혼 방울 딱딱허게 셔노민 그거 먹어서 똥 싸민 도새기 욕헌덴 헤낫주게.(산팔나무 열매는 속에 씨 한 방울 딱딱하게 있어서 그거 먹어서 똥 싸면 돼지 욕한다고 했었지.)<선홍>
- ㄴ. 어디 강 들으민 동티 낫젠 허민 그 동틸 다시려사, 다시려사 좋은 거(어디 가서 물으면 동티 낫다고 하면 그 동티를 다시려야, 다시려야 낫는 거.)<삼달>
- ㄷ. 우리 보리눌 눈 거 닥으믄 클 임제가 언제 홀트쿠젠 허영.(우리 보

8) 김미진, 「제주 방언의 인용 표지 연구」, 『영주어문』 41, 영주어문학회, 2019.



- 리가리 가린 거 같으면 그네 임자가 언제 훔겠냐고 해서)<인성>  
 르. 그거(목화 다래) 튼아 먹어불민 어멍헌티 욱 다 듣곡 야, 뵈으로 옷  
 해 입을 거넨 허멍.(그거 뜯어 먹어버리면 어머니한테 욱 다 듣고  
 야, 뵈으로 옷 해 입을 거냐고 하면서.)<태흥>  
 모. 개 죽은 것도 봐나민 아이고 나 몸 비리고넨 느가 헐 거 허렌 허곡  
 이.(개 죽은 것도 보고 나면 아이고 나 몸 비렸다고 네가 할 거 하  
 라고 하고.)<함덕>

(2 가)은 ‘도새기 욱헌다’에 ‘엔’이 결합한 것이고 (2 나)은 ‘동티 낫  
 저’, (2 다)은 ‘홀트쿠과’, (2 리)은 ‘입을 거냐’, (2 모)은 ‘비리고라’, ‘허  
 라’에 ‘엔’이 결합하여 인용문을 만든 것이다. (2 가, 나)은 평서문 (2 다,  
 리)은 의문문 (2 모)은 감탄문과 명령문이다. 인용 표지로 평서문에  
 ‘-넨, -젠’이, 의문문에 ‘-겐, -넨’이, 명령문에 ‘-렌’이, 감탄문에 ‘-랜’이 쓰  
 인 것을 볼 수 있다. 제주도 방언에서는 문장 종류에 따라 종결어미가  
 중화되지 않고 피인용문의 종결어미에 인용 표지 ‘-엔’이 결합하여 기능  
 을 수행한다.

### 3) 상대높임법

제주도 방언의 간접 인용에서는 상대높임법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  
 고 낮춤의 어미로 변하기도 한다.

- (3 가. 쉼 빌젠 허민이 조 비어 나민 조남댕이도 앗당 쉼 줍센 앗당 주곡.  
 (소 빌리려고 하면 조 줄기도 가져다가 소 주라고 가져다 주고)  
 <태흥>  
 나. 시어멍네 ㄱ라 들어봐, 어떻 험니쎄.(시어머니네보고 물어봐, 어떻게  
 하느냐고.)<삼달>

(3 가)은 상대높임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간접 인용으로 피인용문의  
 ‘줍서’라는 높임 표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기에 ‘-엔’이 결합하여 ‘줍  
 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3 나)은 도치된 형태의 문장으로 ‘어떻  
 게 합니까’에 ‘-엔’이 결합된 것이다.

#### 4) 인칭대명사

피인용문의 인칭대명사는 간접 인용에서 인용화자 관점에 맞춰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바뀌지 않고 그냥 쓰이기도 한다.

- (4) ㄱ. 지는 살고 지광 ㄴ찌 온 사람 하나 앞뒤칩이서 죽으난 어떻 강 이 부모를 만날 거냐?(자기는 살고 자기와 같이 온 사람 하나 앞뒷집에서 죽으니까 어떻게 가서 이 부모를 만날 거냐?)<태흥>
- ㄴ. 난 오레비 죽엇젠 올명 오난에, 우리 아버지 집이 오난에 느네 오레 빈 안 죽엇저, 경헨 이젠 앞집이 하르방신디 송침이 하르방신디 싯 져.(난 오라비 죽었다고 올면서 오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오니까 너희 오라비는 안 죽었어, 그래서 이젠 앞집에 할아버지에게 송씨 집의 할아버지에게 있다고.)<인성>

(4 ㄱ)에서는 인칭대명사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지는’과 ‘지광’의 ‘지’는 ‘자기’의 제주어로 원래 피인용문의 화자는 ‘나는 살고 나랑 같이 온 사람처럼 발화를 했을 것이다. 이것이 간접 인용문으로 제보자가 조사자에게 말을 전하면서 인칭대명사가 간접화를 겪은 것이다. (4 ㄴ)은 아버지가 화자에게 “너희 오라비는 안 죽었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직접 인용에 더 가깝게 보이지만 뒤에 ‘경헨’이 있고 앞뒤 문맥상 간접 인용이나 ‘너희’가 그냥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 5) 시제

피인용문의 시제는 중양어와 같이 인용 문장의 시제와 일치시키지 않고 말할 때의 시제를 그대로 사용한다.

- (5) ㄱ. 아기 나근에 이틀밤만 살앙 헤시민 원이 엇이켄 허주.(아기 낳아서 이틀밤만 살아서 했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지.)<삼달>
- ㄴ. 비 왓직헌디 놉 오민 저 하르방은 또 비왓직 헌디 놉 보냈젠 욕을 허기를 그냥.(비 올 것 같은데 놉 오면 저 할아버지는 또 비 올 것 같은데 놉 보냈다고 욕을 하기를 그냥.)<선흘>
- ㄷ. 우리 ㄴ치 젊은 사람덜은 앗앙 비어가민 젊은 사람이 앗앙만 비엄텐

헨.(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은 앉아서 베어가면 젊은 사람이 앉아서 벤다고 했어.)<태흥>

(5 가)의 ‘원이 없겠다’는 미래, (5 나) ‘보냈다’는 과거, (5 다)은 ‘베고 있다’는 현재 진행의 시제가 사용된 예이다. 원발화의 시제는 인용문이 되어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6) 문장 종류에 따른 종결어미의 중화

표준어의 경우 문장의 종류에 따라 인용문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종결어미가 문장 종류에 따라 하나의 종결어미로 중화되고 나서 인용 표지와 결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 방언의 경우는 간접 인용문에서도 문장의 종류에 따라 하나의 종결어미로 중화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인용문의 종결 어미 끝 음절에 따라 축약된 인용 표지 모습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주도 방언 인용 표지는 종결어미와 직접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직접 인용의 경우 인용 표지가 생략될 수도 있지만 간접 인용의 경우 인용 표지를 생략하기 힘들다.

평서문의 종결 어미 ‘-다, -키여, -라, -저, -냐’ 등이 인용될 때는 각각 ‘-덴, -켄, -렌, -젠, -넨’ 등으로 실현된다.

(6 가) 불려주민 든든혜영 땅에 보리 옴넨 허주마는.(밟아주면 단단해서 땅에 보리 여문다고 하지마는.)<인성>

나. 우리 어머님넨 재량을 세 개씩 즐어나고렌 한다.(나쁜 건 ‘재량. 우리 어머님은 ‘재량을 세 개씩 결었었다고 한다.) <선홍>

(6 가)의 ‘-넨’과 (6나)의 ‘-렌’은 평서문 어미로 ‘옴냐’, ‘즐어나고라’와 같은 종결형에 ‘엔’이 결합한 형태이다. 평서문의 인용 표지는 주로 ‘-젠’과 ‘-덴’이 많이 나타나지만 종결어미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의문문이 인용된 경우 피인용문의 종결 어미 ‘-과, -고, -가, -니, -냐

등이 인용 표지 ‘-엔’과 결합하여 각각 ‘-궐, ,-곤, -겐, -닌, -넨’ 등으로 실현된다.

- (7) ㄱ. 춤 곳사 식으로 술 풀 거 이수궐을 허든지 그디 내용 빠레 다 텅 겨났어.(참 아까 식으로 소를 팔 거 있냐고를 허든지 거기 내용 빠러 다 다녔었어.)<함덕>
- ㄴ. 할망네 집이 가민 따시 또 생일 헨 먹언젠 허민, 안 헨 먹고렌. (할머니네 집에 가면 다시 또 생일 해서 먹었냐고 하면, 안 해서 먹었다고.)<삼달>

(7 ㄱ)은 ‘이수과?’라는 종결형이 인용 표지 ‘엔’을 만나 ‘궐’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며 (7 ㄴ)은 의문문이므로 ‘냐’로 중화되어야 할 것같으나 ‘먹언자?’가 ‘엔’과 결합하여 ‘먹언젠’의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의문문이 피인용문으로 오는 경우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는 ‘냐와 ‘엔’의 결합형인 ‘넨’이다.

명령문을 인용한 인용문에서 인용 표지는 ‘-렌’, ‘-센’ 등으로 실현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라, -암서/엄서, -삼’은 ‘-렌’으로, ‘-읍서’는 ‘-센’으로 나타난다. 후자는 높임의 의미가 결합된 형태이다. 만약 표준어와 같이 간접화가 진행되어 종결법의 중화가 이루어진 후 간접 인용문이 만들어진다면 ‘-센’과 같은 형태는 모두 ‘-렌’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많은 제주도 방언 화자는 ‘-센’ 형태의 간접 인용문을 많이 사용한다.

- (8) ㄱ. 옛날 빨래 이제 허면은 좋지 못허덴 영등 보름 전이 빨래허지 말렌 덜 헤난.(옛날 빨래 이제 허면은 좋지 못 하다고 영등 보름 전에 빨래하지 말라고들 했었어.) <선홍>
- ㄴ. 삼촌네 한 마다리 들린 걸 큰 마다리로 하나 들린 건 먹읍센 허꼭 열 마다린 풀아쥬라게.(삼촌네 한 마대 말린 걸, 큰 마대로 하나 말린 건 드시라고 하고 열 마대는 팔아주더라.)<인성>
- ㄷ. 경허민 팔월 나가민 산에 미 빠레 가젠 허멍덜 막 점심 싸 아지고 그것덜 막 강 빠.(그러면 팔월 나면 산에 빨기 빠러 가자고 하면서 들 막 점심 싸 가지고 그것들 막 가서 빠.)<태홍>

(8 가)은 명령문의 간접 인용을 보여주는 예로 ‘말랴’에 인용 표지 ‘-엔이,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덜’이 결합한 것이다. (8 나)에서는 ‘먹읍서’와 같은 상대높임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간접 인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8 다)은 ‘가게’라는 청유 종결형에 ‘-엔이’ 결합한 것이다.

표준어에서 청유문이 간접 인용될 경우는 피인용문의 종결 어미 ‘-자, -비시다’ 등이 ‘-자’로 중화되고 인용 표지 ‘-고’가 결합되어 ‘-자고’와 같이 나타난다. 제주도 방언에서는 ‘-랴, ‘-읍서’, ‘-게’, ‘-읍주’ 등이 간접 인용문에서 인용 표지와 결합하여 각각 ‘-렌’, ‘-읍센’, ‘-겐’, ‘-즌’ 등으로 실현된다.

제주도 방언 화자의 인용문 발화에는 문장 종류에 따라 중화되지 않은 상태로 인용 표지와 결합한 형태가 많이 존재한다. 표준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상대높임을 ‘하’체로 중화해서 간접 인용을 만들어야 한다. 표준어의 간접 인용 조건을 가지고 제주도 방언 인용문을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친다. 제주도 방언의 인용문에 대한 그간의 연구가 표준어의 간접 인용에 준해 청자높임법과 문장종결법의 중화를 간접 인용의 전형적인 기제로 대우해 온 결과라는 견해<sup>9)</sup>도 있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근본적인 차이는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전달하느냐 간접적으로 전달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화용론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종결어미가 중화되고, 상대높임법이 ‘하’체로 바뀌는 등의 문법 적용으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구분 지을 수는 없다. 구어체 특히 방언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 7) 인용 동사

표준어에서는 인용 동사로 ‘말하다’류의 발화동사, ‘생각하다’류의 사유동사, ‘느끼다’류의 심리동사, ‘알다’류의 인지동사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사용된다. 제주도 방언의 구술 자료에서는 인용 동사로 ‘하’동사가

9) 문숙영, 한국어 문법 연구와 방언 문법, 『방언학』 16, 한국방언학회, 2012, 68쪽.

가장 많이 쓰인다. 그리고 많은 인용 동사는 생략된다. 인용 표지만으로 인용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오는 ‘하다’동사를 생략하여 인용 표지로 끝맺는 경우가 많다. ‘말하다’의 제주어 ‘곤다도 가끔 등장하며 ‘경허다’, ‘영허다’, ‘경’, ‘영’과 같은 ‘그라’류의 동사가 사용되는 예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 방언이 구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9) ㄱ. 양에썸 툷아다 도렌 허민 그 소곱에 거 연헌 거엔 툷앙 오민 따시 또 곱에 거 안 툷아 왓덴 욱허고(양하읻 뜯어 달라고 하면 그 속에 거 연한 거라고 뜯어서 오면 다시 또 곱에 거 안 뜯어 왔다고 욱하 고)<삼달>
- ㄴ. 신척이 높은 거 사둔 높은 거 곱덴 경도 허고(신 뒤축 높은 거 사 둔 높은 거 나쁘다고 그렇게도 하고)<선흘>
- ㄷ. 니네 일 잘헤영 부지런히 허라, 이제 저 백중날은 물 맞으러 가겐 허영은에.(너희 일 잘해서 부지런히 해라, 이제 저 백중날은 물 맞으 러 가자고 해서.)<인성>
- ㄹ. 손지가 허는 말이 하나 틀령 이점 감점 뵈젠. 구십팔점 나올 겨우 덴.(손자가 하는 말이 하나 틀려서 이점 감점 뵈었다고 구십팔점 나올 거라고)<함덕>

인용 동사로 (9 ㄱ)은 ‘욕허다’ (9 ㄴ)은 ‘경도 허다’ (9 ㄷ)은 ‘허다’가 쓰인 것이고 (9 ㄹ)은 생략된 예다. 제주도 방언에서는 인용 동사가 다양하게 등장하지 않고 ‘하다’동사가 쓰이거나 생략되는 형태가 많이 등장하며 ‘그라’류의 동사도 사용된다.

### Ⅲ. 제주도 방언 인용문의 실현 양상

실제 발화 상황에서 인용문의 실현 양상은 매우 다양하고 불규칙적이다. 구어의 특성상 생략이나 변용이 많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인용문에서 생략되지 않는 필수 요소는 피인용문이다. 전달할 매개체가 있어

야 인용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또 인용 표지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분 중 하나다. 인용 표지는 인용조사나 인용어미와 같은 문법형태소, 따옴표와 같은 문장부호, 비분절적음운인 휴지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인용 표지를 통해 그 문장이 인용문인지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인용문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다. 그런데 구어체에서는 어느 쪽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인용문도 많이 등장한다. 직접 인용의 특징과 간접 인용의 특징을 조금씩 갖고 있는 형태이다. 이런 인용은 반 직접 인용, 반 간접 인용, 유사 인용, 자유 인용과 같은 용어로 설명되어 왔다. 자유 간접화법도 간혹 비슷하게 사용되나 이는 서술자가 인물의 입장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문학에서 다루는 서술 방식이므로 인용과는 조금 다른 범주이다.

이러한 인용의 대표적인 형태는 간접화를 겪지 않고 직접 인용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용 표지로 조사를 덧붙이는 것이다. 감탄사의 사용, 호격어, 인칭대명사의 사용, 상대높임법 등 피인용문이 직접 인용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간접 인용 표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경계에 있는 이러한 인용문을 ‘자유 인용’이라는 영역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간접화 과정이 시작되었으나 완전히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의 인용<sup>10)</sup>이다. 제주도 방언에서는 이런 자유 인용이 두드러진다. 상대높임법을 유지하면서 문장종결어미를 중화하지 않고 인용 표지를 연결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제주도 방언에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형태가 같다고 했지만 자유 인용을 설정하면 설명하기가 쉬워진다.

이 세 종류의 인용을 구분하기 위한 요소로 현장감과 간접화의 유무를 상정하였다. 현장감은 실제 발화 상황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서의 느낌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인용문이 발화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간접화란 전달되는 피인용문에 인용화자의 관점이 반영되는 것을 말한다. 현장감과 간접화의 유무에 따라 직접 인용과 간접 인

10) 정화영, 『현대 한국어 구어 인용구문 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2017, 1쪽.

용, 자유 인용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주도 방언의 인용문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직접 인용

직접 인용문은 원발화나 생각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인용 방식이다. 원발화의 정확성을 높이고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선택하는 언어 전략이다. 따라서 감탄사나 지시어, 호격어의 사용이 두드러지며 원발화의 억양과 강세가 그대로 유지되며 피인용문 다음에 휴지가 존재한다. 실제 제주도 방언 구술 자료에서는 직접 인용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따옴표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직접 인용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음성 파일을 확인해야 한다. 비분절적 음운인 휴지를 확인하고 문맥을 살펴 직접 인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직접 인용은 피인용문의 현장감을 살리면서 인용화자의 관점이 반영되지 않은 인용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 인용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다.

직접 인용: “피인용문” +(인용 표지)+ (인용 동사) [+현장감, -간접화]

인용화자와 인용청자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외하였다. 직접 인용에서 문법형태소인 인용 표지나 인용 동사는 생략될 수 있다. 문장 부호인 따옴표가 인용 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인용문 다음에 휴지가 수반된다.

### 1) 피인용문

직접 인용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인용문이다. 피인용문은 원발화자의 발화를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인용화자의 관점에서 간접화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피인용문은 감탄사나, 단어부터 여러 개의 문장까지 모두 가능하다. 직접 인용문은 억양이나 감탄사, 높임법 등을 그대로



인용구문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어떤 형식이라도 발화 그대로를 인용한다.

- (10) ㄱ. 우리 아버지 딱 산 때에 “야, 조케야. 이레 오라.” 허난 “무사마 씹?” 허난 “하르방 오늘까지 밥 혼 사발 안 먹었저.” 허난(우리 아버지 딱 살았을 때 “야, 조카야. 이리 오라.” 하니까 “왜요?” 하니까 “할아버지 오늘까지 밥 한 사발 안 먹었다.” 하니까.) <인성>
- ㄴ. “아이고, 이걸 어떻게민 좋코?” 아이덜이라도 요디 썩 새끼 낳젠 허민 그냥 봉가 불카부덴.(“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들이라도 요기 썩 새끼 낳았다고 하면 그냥 주워 버릴까봐.) <함덕>
- ㄷ. 그냥 받읍서, 받읍서 해도 아이 받안 줘시네게.(그냥 받으세요, 받으세요 해도 안 받아서 줘어.)<인성>

(10 ㄱ)은 “야, 조케야. 이레 오라.”, “무사마 씹?”, “하르방 오늘까지 밥 혼사발 안 먹었저.”와 같은 세 개의 문장이 차례로 발화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 아버지이면서 할아버지인 대상이 밥을 안 먹는 것을 걱정하여 동네 어른이 자신을 불러 하는 말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10 ㄴ)은 직접 인용문인 “아이고, 이걸 어떻게민 좋코?”와 ‘썩 새끼 낳젠 허민’의 간접 인용문이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직접 인용의 피인용문은 실제 발화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야’, ‘아이고’와 같은 감탄사, ‘이레’와 같은 지시어 등이 피인용문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10 ㄷ)의 피인용문은 인용 표지가 없지만 인용문임을 알 수 있다. 피인용문 뒤의 휴지가 있으므로 따옴표를 표시해 주면 인용문임을 확실히 드러낼 것이다. 여기서도 ‘받읍서’처럼 상대높임법이 피인용문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2) 인용 표지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 등을 화자가 다시 언급하는 것이므로 피인용문은 분리가 되어 인용 기호인 따옴표 안에 들어가며 인용 표지로 연결된다. 그러나 구어체인 제주도 방언 대화문에서 따옴

표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피인용문이 간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엔’과 같은 인용 표지와 연결되면 직접 인용인지 간접 인용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제주도 방언의 인용문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형태가 동일하다고 설명해 왔다.

- (11) ㄱ. 무신 내 남저, 무신 내 남저. 얘기가 끝나, 누게네 집이 강 보렌 다 고야.(무슨 냄새 난다. 무슨 냄새 난다. 아기가 말한다. 누구네 집에 가서 보라고 다 말해.)<함덕>  
 ㄱ’ “무신 내 남저, 무신 내 남저.” 얘기가 끝나, “누게네 집이 강 보라”엔 다 고야.  
 ㄴ. 아이고 나 허리 아팡 못허켄 헨 겐 설러분 거.(아이고 나 허리 아파서 못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만둔 거.)<태흥>  
 ㄴ’ “아이고 나 허리 아팡 못허켜”엔 헨 겐 설러분 거.

(11 ㄱ)은 아기가 말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밑줄 친 부분은 간접 인용인가 (11 ㄱ) 처럼 직접 인용인가? 또 (11 ㄴ)은 ‘아이고’와 같은 감탄사를 사용하지만 ‘못허켄 헨’처럼 간접 인용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11 ㄴ)과 같은 문장이라면 어떻게? ‘라+엔’, ‘켜+엔’이 ‘렌’, ‘켄’ 처럼 축약되어 나타나지만 문맥상 직접 인용이라고 할 수도 있다. 또 피인용문 다음에 휴지가 없고 피인용문과 인용 표지가 분리되지 않으므로 간접 인용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담화상황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직접 인용에서 인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는 따옴표, 피인용문 다음의 휴지, 인용을 나타내는 문법형태소인 ‘엔’과 같은 인용 표지 등이다.

직접 인용의 경우 피인용문과 인용 동사만으로도 인용문이라는 정보가 충분하고 피인용문 다음에 오는 휴지가 인용 표지의 역할을 하게 되어 인용 표지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문장성분의 생략은 복원 가능한 담화 상황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문맥상 유추가 가능한 경우나 화자와 청자가 정보를 공유한 경우 생략이 가능해진다. 제주도 방언에서 피인용문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따옴표나 휴지가 인용 표지가 되며 ‘엔’

양'과 같은 인용 표지는 생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12) ㄱ. “도새기 풀 거 엇수과?” 행 새시방도 보러 가고 사돈 허는 행동도 보레 가곡 경헤낫어.(“돼지 팔 거 없습니까?” 해서 새신랑도 보러 가고 사돈 하는 행동도 보러 가고 그렇게 했었어.)<함덕>
- ㄴ. 계난 “설탕 놔부난 맛엇수다마는 먹읍서.” 허난 “좋다게.” 허멍.(그러니까 “설탕 놔버리니까 맛없습시다마는 드세요” 하니까 “좋다”고 하면서.)<선홀>
- ㄷ. “하르방 밥 해주라.” 허고테 “밥 해주당에 나 무슨 말 들음사 험터 나 밥 안허쿠다. 아이고 다신 안 허크라, 다신 안 허크라.” 헤라게. (“할아버지 밥 해주라.” 하길래 “밥 해주다가 나 무슨 말 듣기야 할지. 나 밥 안하겠습니까. 아이고, 다시는 안 하겠어, 다신 안하겠어.” 하더라.)<인성>

(12)에는 제주도 방언의 인용 표지인 ‘-엔’이 생략되었다. 대신에 따옴표를 사용하고, 피인용문 다음에 휴지를 두고, ‘허다’가 인용 동사로 사용되어 인용임을 보여주고 있다. 직접 인용에서 인용 표지는 문장부호인 따옴표와 초분절적음운인 휴지, 인용 표지로서의 ‘-엔’을 들 수 있다.

### 3) 인용 동사

제주도 방언의 직접 인용에서 인용 동사는 ‘허다’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 ‘말하다류’의 동사도 보이지만 ‘허다’의 출현이 압도적이다. 아래의 예는 인용 동사 ‘허다’가 사용된 예다. 피인용문 다음에 인용 표지로 따옴표가 쓰이고 ‘허다’의 활용형인 ‘허난, 허는’과 같은 것이 연결된 형태다.

- (13) ㄱ. 막곳엔 볏아 가난 “가름에 누게 아방 죽엇저” 허난.(마지막엔 밭아 가니까 마을에 누구 아버지 죽었다 하니까.)<삼달>
- ㄴ. 우리 요 동녃집이 사름이 “저사름 돛박지름 빵 덩겨나신게 셔?” 허난 “어뜨난 마썸?” 허난.(우리 요 동녃집 사람이 “당신 동백 기름 빼서 다니던데 있어?” 하니까. ”왜요?“하니까.)<인성>
- ㄷ. 아무것도 엇이난 못도 못 먹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엇이난 이젠 솓

을 싣언 어뻐다.” 허는 거라.(아무것도 없으니까 무릇도 못 먹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으니까 이제 솟을 씻어서 얹었다.” 하는 거야.)<태흥>

인용 동사가 올 자리에 ‘그렇다’, ‘이렇다’와 같은 말이 오는 경우가 있다. 제주도 방언에서도 ‘경’, ‘경허다’나 ‘영’, ‘영허다’ 등이 사용된다. 이들은 담화상에서 앞서서 나온 정보를 참조하는 대용어의 특성을 가지며 인용구문에서 인용 동사를 대신하여 사용된다.

- (14) ㄱ. “나똥 강 보리 강 흔 줌 비어 오라. 우리 보리 해근에 보리밥 헝 먹어근에 우리 못 구멍 먹지 말게.” 경협센 허여근에.(“내 딸 가서 보리 가서 한 줌 베어 와라. 우리 보리밥 해서 보리밥 해서 먹어서 우리 무릇 구워 먹지 말자.” 그러자고 해서.)<삼달>
- ㄴ. 연 뛰다근에 낭에나 어디 걸리민 “아이고 연 방장헛저.” 영 준다. (연 날리다가 나무에나 어디 걸리면 “아이고 연 방장했다.” 이렇게 말해.)<선흘>
- ㄷ. “게민 당신넨 살고 우린 죽느냐?” 이제 경현 거라.(“그러면 당신네는 살고 우린 죽느냐?” 이제 그렇게 한 거야.)<태흥>

제주도 방언의 직접 인용문은 인용 동사가 생략되어 피인용문으로 끝이 나기도 한다. 인용 동사가 생략되어도 피인용문만으로도 인용문임을 알 수 있거나 (15 ㄴ)처럼 ‘-하는 말이와 같은 단어가 앞에 제시되기도 한다.

- (15) ㄱ. 노래할 사름 이름 올리렌 허난 날ㄴ라 “저사름 노래 하나 허커라?” 허난 “안 허쿠다.” 그디 가난 헝 기분이 안 난 “안 허쿠다.” 허난 “게건 가게.” 정기 탕 기냥 와 불었는데.(노래할 사름 이름 올리라고 하니까 나보고 “당신 노래 하나 하겠어?” 하니까 “안 하겠습니까.” 거기 가니까 할 기분이 안 나서 “안 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가자.” 자전거 타서 그냥 와버렸는데.)<인성>
- ㄴ. 그 할망이영 혼디 강 누민 그 할망이 허는 말이, “아이고 나똥, 는 어디 가민 낭중에 크민 잘살 거여.”(그 할머니랑 함께 가서 누우면 그 할머니 하는 말이. “아이고 내 딸, 넌 어디 가면 나중에

크면 잘살 거야.”)<삼달>

## 2. 간접 인용

간접 인용은 인용이 이뤄지는 발화 상황에 맞춰 인용 화자의 입장에서 피인용문의 몇 가지 요소가 간접화되어 나타나는 인용의 형태이다. 표준어에서는 원발화가 간접 인용되면서 인칭, 시제, 지시어, 높임법 등이 변형되어 나타난다. 간접 인용은 필수적으로 이러한 간접화의 순서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제주도 방언에서 피인용문의 현장감을 중화시키고 인용화자의 입장에서 간접화된 형태의 인용이 사용된다. 간접 인용의 피인용문은 현장감은 없지만 인용화자의 관점에 재해석된 인용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간접 인용: 피인용문+ 인용 표지+ (인용 동사) [-현장감, +간접화]

간접 인용에서는 피인용문과 함께 인용 표지가 필수적이며 인용 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간접인용에서 인용 표지 ‘-엔’은 생략되지 않으며 인용문임을 나타내 주는 단서가 된다. 인용 동사로는 ‘허다’가 가장 많이 쓰이며 ‘경’류의 동사, 생략된 형태도 많이 나타난다.

### 1) 피인용문

간접 인용은 인용 화자가 어떤 발화나 생각을 제삼자에게 다시 전할 때 그 결과물에 자신이 주관어 개입되어 나타난다. 제주도 방언에서는 피인용문의 종결어미가 문장 종류에 따라 중화되지 않는다.

- (16) ㄱ. 궤기도 못 굽곡 누게 아팠젠도 못 곤곡 꼬딱 못허게 허여.(고기도 못 굽고 누구 아팠다고도 못 말하고 까딱 못하게 해.)<삼달>  
 ㄴ. 칙고장 피민 몰궤기 안 먹넌 헤낫어.(참꽃 피면 말고기 안 먹는다 고 했었어.)<선흘>  
 ㄷ. 거 무사 경험시넌, 베로 그 저술에 나도 베로(그거 왜 그러냐고

베로 그, 겨울에 나도 베로.)<함덕>

(16 가)은 ‘누게 아팠저.’ (16 나)은 ‘칙고장 피민 들퀘기 안 먹나.’와 같은 말을 간접 인용하는 것으로 뒤에 인용 표지 ‘-엔’이 결합된 형태이다. (16 다)은 배넷저고리를 제주에서 베로 만드는데 ‘거 무사 경험시냐’라는 문장에 ‘-엔’이 결합된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피인용문은 실제 상황에서 발화와 속담을 인용하고 있다.

## 2) 인용 표지

간접 인용의 인용 표지는 피인용문의 종결어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평서문의 경우는 ‘-덴, -켌, -렌, -젠, -넌’, 의문문은 ‘-켌, -젠, -곤, -닌, -딘, -넌’ 등으로 실현된다. 명령문은 ‘-렌’, ‘-센’, 청유문은 ‘-겐’, ‘-준’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피인용문의 종결어미가 문장의 종류에 따라 ‘다, 키여, 라, 저, 나’, ‘과, 고, 니, 디, 냐’, ‘라, 읍서’, ‘게, 주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종결어미에 인용 표지 ‘-엔’이 결합하여 인용문이 만들어진다.

- (17 가. 순경 절로 완젠 허민 저 나무 가메기 앓아도 저거 순경이엔 허민 노래영 ㄱ만이 집이 앓앙 집이서만 놀야.(순경 저리로 온다고 하면 저 나무 까마귀 앓아도 저것 순경이라고 하면 놀라서 가만히 집에 앉아서 집에서만 놀야.) <삼달>  
 나. 두루에기 뿔리도 먹곡게. 감기에 딸령 먹넌.(하늘타리 뿌리도 먹고 감기에 달여서 먹는다고)<선흘>  
 다. 나 죽어불민 식계혈 때 묵 허지 말렌 헛주.(나 죽어버리면 제사할 때 묵 하지 말라고 했지.)<함덕>

(17 가)은 ‘순경 완저.’ ‘순경이여’라는 문장에 ‘-엔’이 결합하여 ‘-젠, -이엔’의 형태가 된 것이다. (17 나)은 ‘감기에 딸령 먹나’와 같은 평서문이, (17 다)은 부정명령문 ‘말라’가 인용 표지와 결합하였다.

### 3) 인용 동사

제주도 방언의 인용문에서 인용 동사로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것은 ‘허다이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많은 출현을 보이는 인용 동사이다. 인용 동사로서 ‘허다를 선호하는 것은 대동사로서의 포괄성 때문으로 보인다. 모든 동사를 대신하여 쓰일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고민 없이 선택되는 것이다. ‘말허다의 제주도 방언인 ‘곤다가 인용 동사로 쓰인 예는 그리 많지 않다. ‘말허다에서 ‘말이 생략되어 ‘허다만 남았다고 유추해 볼 수도 있으나 제주도 방언에서는 ‘곤다가 ‘허다라는 대동사로 대치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8) ㄱ. 이 눈에, 눈 조금 깜빡깜빡하는 사름<sup>7</sup>라 거 도라움 걸렸젠 곶아 낫. (이 눈에, 눈 조금 깜빡깜빡하는 사람보고 거 ‘도라움’ 걸렸다고 말했었어.) <선홀>
- ㄴ. 옛날엔 그거 피 삭으렌 경행 그거 방스로 모뎀<sup>8</sup>루 키쨌주.(옛날엔 그거 피 삭으라고 그렇게 그거 방사로 메밀가루 타쨌지.) <삼달>
- ㄷ. 영등할마님이 그믐날 소섬 들어왕 이제 초흐를 날은 막 들어온텐 경 곶아 낫어.(영등할머니가 그믐날 우도 들어와서 이제 초하루에는 막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했었어.) <선홀>

(18 ㄱ)은 ‘곶다가 (18 ㄴ)는 ‘경허다가 (18 ㄷ)은 ‘경 곶아낫어가 인용 동사로 결합한 것이다. (18 ㄴ)은 피를 맑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이유로 메밀가루를 타서 쨌다고 하고 있다. (18 ㄷ)은 영등할머니가 초하루날 들어온다는 것을 대상화하여 쓴 것으로 이 경우 ‘경은 생략해도 의미상 차이는 없으나 앞에 나온 피인용문을 강조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허다, 영허다, 경, 영과 같은 제주도 방언은 ‘그렇다, 이렇다, 그렇게, 이렇게와 대응하는 것으로 인용문에서 인용 동사 대신에 사용되기도 한다. 직접 인용이 인용 표시 없이 바로 ‘경허다류와 연결되는 것과는 달리 간접 인용에서는 인용 표시 다음에 ‘경허다류의 단어가 온다. 피인용문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나 ‘그렇게 해서와 같은 의미를 추가하여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19) ㄱ. 여남은 단 지민 것도 버쳐. 따시도 날궤라 삼춘은 검질을 죽영 정  
 땡점젠 옥만 퍼 허멍.(여남은 단 지면 그것도 부쳐. 다시도 나보고  
 삼춘은 검불을 적게 저서 다닌다고 옥만 퍼 하면서.)<삼달>
- ㄴ. 콩도 초복 넘영 갈아근에 흔 뉘약에 두 뉘약 난덴 말은 헤여도 잘  
 크질 못허여. 인칙 갈아야 뉘여.(콩도 초복 넘어서 갈아서 한 ‘뉘약’  
 에 두 ‘뉘약’ 난다고 말은 해도 잘 크지 못해. 일찍 갈아야 돼.)  
 <선홀>

(19 ㄱ)과 (19 ㄴ)은 뒤에 ‘옥, 말과 같은 명사가 결합된 형태이다. 표면적으로만 볼 때는 피인용문이 관형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말을 하다’, ‘옥을 하다’와 같이 ‘말하다’류의 동사가 변형된 모습이 결합된 것으로 구조적으로 인용절로 안긴문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어체 인용문에서 인용 동사의 생략은 흔하게 나타난다. 인용 동사가 생략되었지만 앞에 나온 인용 표지로 인용문임을 알 수 있기에 비격식적인 자리에서나 친분관계가 있을 경우 더욱 쉽게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

- (20) ㄱ. 폭도 오람젠 곱으레 가민 다른 사름덜은 아기덜 막 여라이도 난  
 아이 하나 업으면 메기주게.(폭도 온다고 숨으러 가면 다른 사람들  
 은 아기들 막 여러 명이라도 난 아이 하나 업으면 끝이지.)<삼  
 달>
- ㄴ. 출 트멍에 강 앓앙 울당 자 불민 출 빠레 오라근에 무사 앓앙 졸  
 앞딘 돌아가꼭 허멍.(꼴 트에 가서 앉아서 울다 자 버리면 꼴 빠러  
 와서 왜 앉아서 졸고 있냐고 데러가고 하면서.)<삼달>

(20)의 예문에서 ‘허영’, ‘허멍’과 같은 ‘허다’ 동사의 활용형을 인용 동사로 추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완성된 문장으로 보인다. ‘폭도가 온다고’, ‘졸고 있냐고’는 다음에 오는 단어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언어의 경제성 측면에서 앞에 나온



인용 표지만으로 인용문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어를 생략하여 발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20 나)의 ‘줄암단’은 ‘줄암디?’에 ‘-엔’이 결합한 형태로 ‘-엔’은 ‘오/우, 이’로 끝나는 종결어미와 결합할 때 ‘ㄴ’으로 나타난다.

### 3. 자유 인용

자유 인용이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특징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 간접화의 중간단계에 있는 인용문을 말한다. 피인용문의 내용이 직접 인용에서의 그것과 같으나 문장의 구조는 간접 인용 형태를 갖는 것이다. 피인용문의 내용은 직접 인용의 의미 관계를 취하여 종결어미에 인용 표지가 결합된 형태이다. 규범문법에 따라 인용문을 구분한다면 잘못된 표현이나, 실제 언어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인용문의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인용문은 제주도 방언 실제 발화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이런 형태의 인용문을 선호하는 것은 인용자가 한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인용자의 감정과 내용 사이에 객관적인 거리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용절의 인칭과 시간 관계 등 종결어미를 제외한 모든 문법이 직접 인용을 따른다. 사회적·문화적 현상에 따른, 화용론적 기능으로 분석 가능한 형태의 문장이다. 자유 인용은 피인용문의 현장감을 살리면서 인용화자의 관점에서 간접화된 인용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 인용: +피인용문+인용 표지+ (인용 동사) [+현장감, +간접화]

#### 1) 피인용문

자유 인용의 피인용문은 감탄사가 등장하기도 하며 인칭대명사의 간접화가 이뤄지지 않는 등 직접 인용적 요소가 많이 등장한다. 인용화자는 원발화의 현장감을 최대한 살려서 발화를 하되 종결어미와 인용 표지로 ‘-엔’이 결합된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발화자의 입장이 아니라

전달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21) ㄱ. 아이고, 아무 집이 저리왓 험젠, 저리왓 갈암젠 헤라 허민, 그걸 어떻게 풀릴 거니 허민.(아이고, 아무 집에 ‘저리왓’ 한다고, ‘저리왓’ 같고 있다고 하더라 하면, 그걸 어떻게 풀릴 거니 하면.) <태흥>
- ㄴ. 밥헛젠 허영인에 혁밥 허영. 아이고 이제 나 우리 우리 집이 누게 제스우다, 오랑 식게 먹읍센.(밥헛했다고 해서 흙밥 해서. 아이고 이제 나 우리, 우리집에 누구 제사입니다, 와서 제사 먹으라고.)<인성>
- ㄷ. 거난 누게 서나시넨, 사름은 딱 이 사름 혼 사름베뀐 엇엇고 어디 나가 오지도 아니헌디 돈이 엇수덴 허난.(그러니까 누가 있었냐고 사름은 딱 이 사름 한 사람밖에 없었고 어디 나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태흥>

(21 ㄱ)은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자유 인용이 모두 들어있는 문장이다. 첫 번째 문장은 자유 인용의 예다. “아이고, ○○ 집에 저리왓 험저.”에서 ‘○○ 집’을 ‘아무 집’으로 인칭 변화를 시키고 ‘험젠’처럼 인용 표지 ‘-엔’을 종결어미에 결합시켰다. 그러나 감탄사 ‘아이고’를 사용함으로써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저리왓’은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인 겨리로 갈아야 하는 거친 밭을 말한다. 두 번째 문장인 “저리왓 갈암젠 헤라 허민”은 이중 인용의 형태이면서 간접 인용이다. [‘저리왓’을 간다고 하더라 하면]에서 보는 것처럼 ‘저리왓’을 가는 주체와 이것을 전달하는 ‘하더라’의 주체와 ‘하면’의 주체가 각각 다르다. 세 번째 문장 “그걸 어떻게 풀릴 거니 허민”은 인용 표지가 생략되어 있는 직접 인용으로 볼 수 있다. (21 ㄴ)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요소가 두루 나타나는 문장이다. 직접 인용적 요소로 감탄사 ‘아이고’ 사용, 인칭대명사 ‘우리’ 사용, ‘먹읍센’의 상대높임법 유지 등이 있으며 간접 인용적 요소로 ‘누게 제사’처럼 부정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먹읍센’의 종결어미와 인용 표지의 결합형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21 ㄷ)은 ‘누게 서나시냐’ 다음은 인용 동사가 생략되었다. ‘돈이 엇수다’는 인용동사로 ‘허난’을 사용하였다. ‘이 사름’은 간접 인용에서는 ‘그 사름’으로 ‘엇수다’는 ‘엇

다로 간접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간접화되지 않은 상태로 인용되면서 인용 표지 '-엔'과 결합하고 있다.

## 2) 인용 표지

인용 표지는 피인용문의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앞에서 제시한 문장을 인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문장의 종류에 따라 종결어미가 중화되는 표준어와는 달리 제주도 방언에서는 피인용문의 종결어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용 표지와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22) ㄱ. 베염 죽은 거 신 디 가도 아이고 몸 비리고렌 행이 이녁이 못 할 정도면은이 막 상물 솟양 손이고 머리고 다 김양 헤낫어.(뱀 죽은 거 있는 데 가도 아이고 몸 비렸다고 해서 자기가 못 할 정도면은 막 향물 삶아서 손이고 머리고 다 감아서 했었어.)<함덕>
- ㄴ. 아이고 이거 이런 세상이 어디 시린 경허멍 살단 보난.(아이고 이거 이런 세상이 어디 있으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삼달>
- ㄷ. 하르방 ㄱ라 시경 급센 헤연 바가쓰에 비완에이 그 수박 싱근 곳에 좀 먼 발로 졸락졸락 쥘 놔뵤.(할아버지보고 실어서 가자고 해서 바켓에 비워서 그 수박 심은 곳에서 좀 먼 발로 '졸락졸락' 쥘 놔뵤어.)<인성>
- ㄹ. 지네 성 이장 뒤엇젠 허난이 아방 ㄱ라 웁서, 이장 뒤난에 희사히 쥘 허난.(자기네 형 이장 되었다고 하니까 아버지보고 웁서, 이장 되었으니까 희사하자고 하니까.)<인성>

(22 ㄱ)의 '비리고렌'은 평서문 '비리고라'에 '엔'이 결합한 형태이다. '아이고'와 같은 감탄사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간접 인용과는 다른 형태임을 보여준다. (22 ㄴ)은 '어디 시리?'와 같은 의문문이 인용된 것으로 '-ㄴ'이 인용 표지로 사용되었다. 감탄사의 사용과 '이런'이 '그런'으로 간접화되지 않은 점을 들어 자유 인용으로 분류하였다. (22 ㄷ)은 명령문 '시경 급서'가 인용된 것으로 '-ㅂ서'는 '흡서체' 명령문 어미로 남편에게 가자고 하는 상황으로 상대높임법이 나타난 경우이다. (22 ㄹ)

은 청유문인 ‘옵서, 이장 뉘난에 희사허게.’가 인용된 것으로 실제 발화에서는 아버지에게 ‘희사허게마썸.’과 같이 발화하였을 것이나 청유문 종결어미인 ‘-게’로 중화되어 나타났다. ‘옵서’는 감탄사로 사용된 것으로 윗사람에게 주위를 환기하거나 무슨 일을 함께하자는 뜻으로도 쓰인 것이다.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옵서’라는 감탄사를 사용했지만 종결어미의 상대높임법은 중화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자유 인용으로 분류하였다.

### 3) 인용 동사

인용 동사로는 ‘허다’, ‘경허다’ 등이 쓰이며 생략되기도 한다. 이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인용 동사와 다르지 않다.

- (23) ㄱ. 밧디 강 욱을 헤도 어멍그라, 아이고, 할마닌 이만저만 헤렌 안 헤.(밭에 가서 욱을 해도 어머니보고, 아이고, 할머닌 이만저만 하더라고 안 해.)<삼달>
- ㄴ. 그믄 뉘가민 아이고 오늘 소섬 들어왔젠 허고 초흐를날은 이제 영등 들어왔젠 경허고(그믄 되어가면 아이고 오늘 우도 들어왔다고 하고 초하루에는 이제 영등 들어왔다고 그렇게 하고.)<선흘>
- ㄷ. 아이고, 장황 뚜께 열앙 허민 아, 무사 장황 뚜께 열앙, 열앙 힘이 췌.(아이고, 장독 두껍 열어서 하면 아, 왜 장독 두껍 열어서, 열어서 하는 거냐고.)<삼달>

(23)의 예들은 ‘아이고’, ‘야와 같은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고 ‘힘이짜?’처럼 상대높임법이 그대로 반영된 종결어미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 실제 발화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는 직접 인용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만저만처럼 화자의 관점에서 요약하거나 종결어미와 인용 표지가 결합한 형태를 보이면서 간접 인용의 성격을 보인다. (23 ㄱ)은 인용 동사 ‘허다’를 사용한 예이고 (23 ㄴ)은 인용 동사 ‘경허다’를 쓰고 있으며 (23 ㄷ)은 인용 동사가 생략된 예이다.

#### IV. 세대별 인용문 사용 양상

다양한 인용문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하고 세대별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확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현재 제주도 방언 구사자는 80대 이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방언의 특징을 볼 수 있는 80대를 기준으로 잡았다. 한 세대인 30세 아래인 50대, 다시 한 세대 아래인 20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각 연령대별로 10명씩 총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의 숫자가 적은 것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사자가 실제 발화 형태로 읽어주고 응답을 표기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인용 문장과 인용 표지의 다양한 결합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결합 형태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주관식으로 대답을 유도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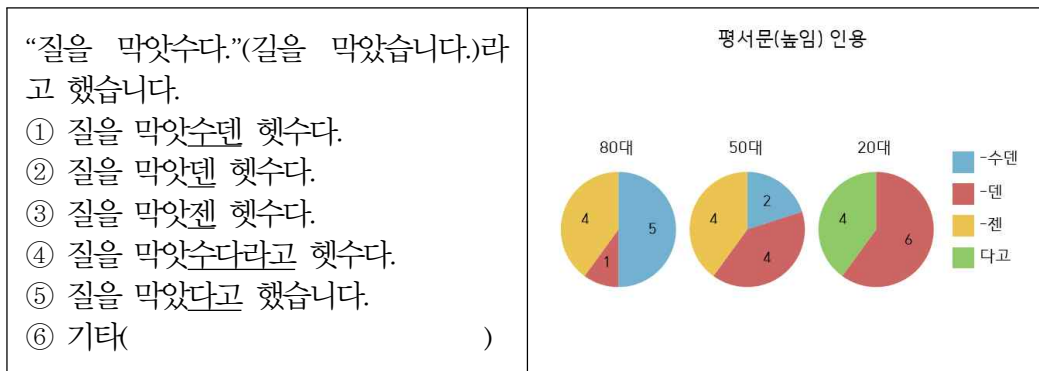
객관식 문항은 문장종류별로 방언형을 고수하는 ①부터 표준어형을 사용하는 ⑤까지 유형화하였다.

- ① 피인용문이 높임이 있을 때 인용문에서도 높임 유지하는 형태
- ② 피인용문의 종결어미에 인용 표지 ‘-엔’이 결합된 형태
- ③ 피인용문의 종결어미 외 다른 종결어미와 ‘-엔’이 결합된 형태
- ④ 표준어형과 방언형이 결합된 형태
- ⑤ 표준어형

설문조사에서는 높임과 낮춤의 피인용문을 제시하여 질문을 만들었으나 여기서는 더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존대 표현이 있는 것에 대한 문항만을 뽑아 제시하였다. 피인용문에 존대 표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존대 표현이 있는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 1. 평서문

피인용문이 ‘흡서체’ 평서문으로 손윗사람에게 한 말을 인용하는 경우 높임과 낮춤, 과거, 현재, 미래 형태의 피인용문을 제시하고 조사하였으나 시제는 인용문에서 변화가 없고 피인용문에 존대 유무에 따라 종결어미와 인용 표지의 결합 형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용화자의 관점으로 간접화하는 간접 인용의 경우 높임이 없어지고 종결어미가 대표형으로 중화되는데 제주도 방언에서는 문장종류별 중화가 일어나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응답 문항은 높임 표현이 남아있는 형태(①막았수덴), 높임표현이 없는 경우(②막았덴), 다른 평서형 종결어미의 형태와 결합한 경우(③막았젠), 방언형과 표준어형이 혼합된 형태(④막았수다라고), 표준어형(⑤막았다고)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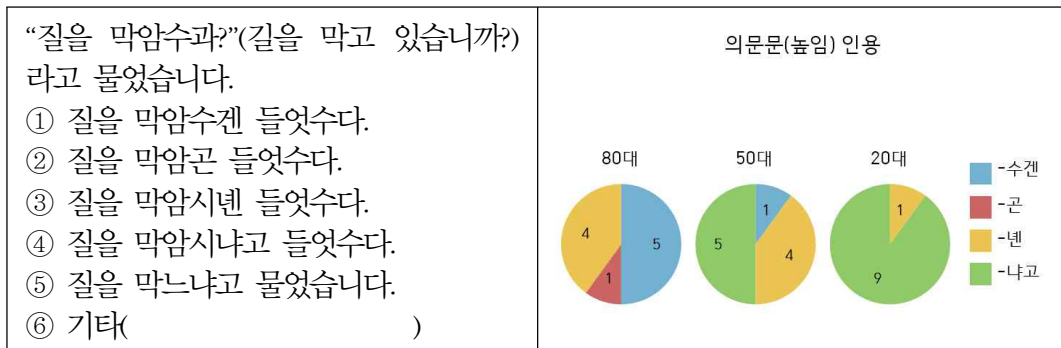


“질을 막았수다”와 같은 문장을 인용할 때 보수적인 제주도 방언화자는 ①막았수덴을 선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80대에서 ③막았젠도 많이 사용하였다. 20대의 경우에도 ②막았덴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답했다. 80대 화자의 경우는 평서문 종결어미 ‘-자’에 익숙하며 20대는 ‘-다’에 더 익숙하다. 그 결과 인용 표지와 결합한 형태도 80대는 ‘-젠’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20대가 ‘-덴’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대 화자는 ‘막았다고’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되었으나 ‘-덴’ 형태를 선택한 것이 특이하다.

피인용문이 종결어미가 ‘-다’로 끝나지 않는 경우는 80대의 경우는 ‘-젠, -렌’과 같은 형태가 등장하지만 20대 응답자는 이러한 문장의 경우도 ‘-덴’으로 중화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밥 먹었저’와 같은 문장을 인용할 때 80대는 ‘밥 먹었젠’과 같이 인용하지만 20대는 ‘밥 먹었덴’이나 ‘밥 먹었다고’와 같은 형태로 인용한다는 뜻이다. 평서형 종결어미 ‘-저’에 익숙하지 않은 20대는 그들에게 익숙한 ‘-다’형으로 바뀌어서 인식하고 여기에 인용 표지 ‘-엔’을 결합하였다. 제주도 방언 평서문 종결어미 ‘-저’를 표준어 종결어미 ‘-다’로 중화시키지만 인용 표지는 방언형인 ‘-엔’을 사용하는 것이다.

## 2. 의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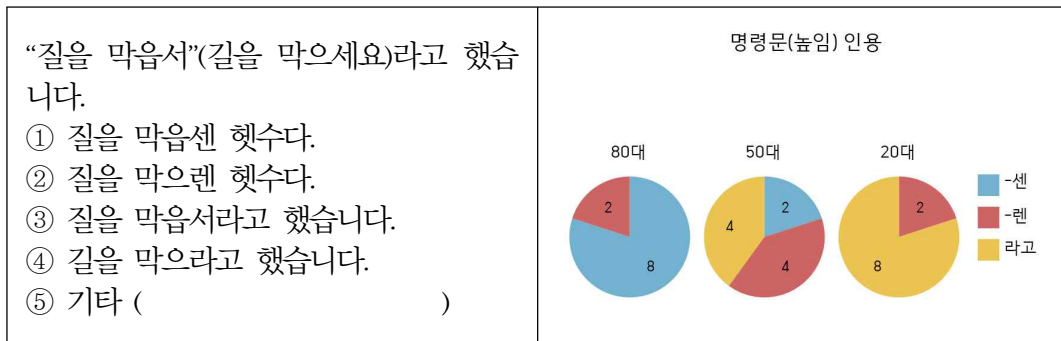
의문문이 피인용문으로 오는 경우 종결어미의 형태에 따라 ‘-젠, -곤, -넨, -냐’와 같은 인용 표지 결합 형태가 나타난다. 또한 시제에 따라서 피인용문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는 대표형으로 현재 진행 시제의 존대표현을 예로 가져왔다. 평서문의 경우처럼 시제는 간접화되지 않으며 존대 표현이 없는 경우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질을 막암수과?”라는 피인용문을 인용할 때 높임 표현이 남아있는 형태(①막암수젠), 높임표현이 없는 경우(②막암곤), 다른 의문형 종결어미의 형태와 결합한 경우(③막암시넨), 방언형과 표준어형이 혼합된 형태(④막암시냐고), 표준어형(⑤막느냐고)으로 제시하였다.



응답 결과를 보면 80대는 ① ‘막암수젠’과 ③ ‘막암시넨’을 주로 사용하며 50대의 경우는 ③ ‘막암시넨’과 ⑤ ‘막느냐고’를, 20대는 ⑤ ‘막느냐고’를 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보수 방언형의 경우 ① ‘막암수젠’의 형태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80대의 경우도 존대 표현을 없애고 의문형 종결어미 ‘-냐’로 중화된 ‘-넨’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50대에 두드러지며 20대에도 드물게 나타난다. 피인용문의 종결어미를 그대로 사용하여 인용 표지와 결합하던 제주도 방언의 의문문 형태는 문장 종류별 대표 종결어미를 상정하고 거기에 인용 표지 ‘-엔’을 결합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 명령문

제주도 방언에서 명령문이 피인용문으로 오는 경우 인용 표지와 결합형은 ‘-센, -렌’이다. 평서문이나 의문문에 비해 종결어미 형태가 다양하지 않고 인용 표지와 결합한 형태도 한정적이다. 높임이 반영된 명령문 종결어미 ‘-읍서’가 사용된 경우 인용 표지와 결합하여 ‘-센’의 형태가 나타나고 그 외의 명령문은 인용될 때 ‘-렌’의 형태로 나타난다. “길을 막읍서”라는 피인용문을 인용할 때 높임 표현이 남아있는 형태(①막읍센), 높임표현이 없는 경우(②막으렌), 방언형과 표준어형이 혼합된 형태(③막읍서라고), 표준어형(④막으라고)으로 제시하였다. 다른 명령형 종결어미의 형태와 결합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아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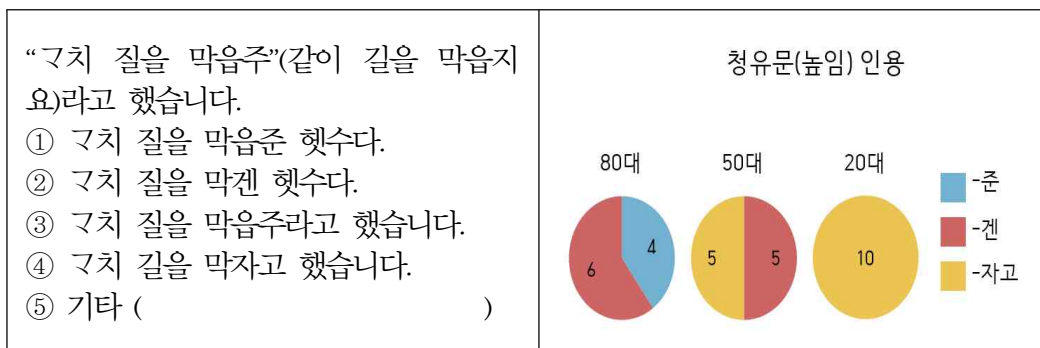


80대는 ① ‘막읍센’을 대체로 사용하고 있으며 ② ‘막으렌’의 사용도 볼 수 있다. 50대의 경우는 ② ‘막으렌’과 ④ ‘막으라고’를, 20대는 ④ ‘막으라고’를 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주도 방언에서 높임 표현이 있는 청유문의 경우는 ① ‘막읍센’과 같이 사용한다. 그런데 80대의 경우도 존대 표현을 없애고 명령형 종결어미 ‘-라’로 중화된 ‘-렌’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50대를 거쳐 20대에도 나타난다. 피인용문의 종결어미를 그대로 사용하여 인용 표지를 결합하던 제주도 방언의 명령문도 명령문 종결어미의 대표형이라고 할 수 있는 ‘-라’로 중화되고 인용 표지 ‘-엔’을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청유문

제주도 방언에서 청유문 인용할 때 나타나는 형태는 ‘-즌’, ‘-겐’ 등이다. 청유형 종결어미에 높임이 반영된 경우 ‘-즌’의 형태로 나타나고 높임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겐’이 나타난다.

“ㄱ치 질을 막읍주”라는 피인용문을 인용할 때 높임 표현이 남아있는 형태(①막읍주), 높임표현이 없는 경우(②막겐), 방언형과 표준어형이 혼합된 형태(③막읍주라고), 표준어형(④막자고)으로 제시하였다. 다른 청유형 종결어미의 형태와 결합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아 제외하였고 표준어형인 ‘-자고’도 볼 수 있다.



자료를 보면 80대는 방언형인 ①‘막읍즌’과 ②‘막겐’을 20대는 표준어

형인 ④ ‘막자고’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대높임법이 적용되는 청유문이지만 높임이 적용되지 않는 청유형의 방언 종결어미인 ‘-게로 중화하고 인용 표지 ‘-엔’을 결합하는 ‘-겐’은 80대에도 나타나며 50대도 절반 정도 사용하는데 반해 20대에서는 방언형을 전형 사용하지 않고 표준어형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를 연령대별로 보면 80대는 피인용문의 높임을 유지하는 형태, 피인용문의 종결어미에 인용 표지 ‘-엔’이 결합된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더불어 다른 종결어미와 결합된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50대는 중화된 다른 종결어미와 인용 표지 ‘-엔’이 결합된 형태를 선호하지만 부분적으로 표준어형의 사용도 적지 않다. 20대는 평서문에서는 방언형 사용이 두드러졌지만 대체적으로 표준어형을 선호한다. 다른 문장 종류에 비해 유독 평서문에서 20대 화자들이 방언형인 ‘-덴’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화자들이 ‘-엔’을 결합하여 인용문을 만드는 것에 익숙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표준어형과 형태가 같은 종결어미 ‘-다’에 ‘-엔’을 결합하여 ‘-덴’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는 방언형이 표준어형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아직 20대도 방언형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평서문 이외의 다른 문장 종류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제시한 문장의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중화되지 않는 다양한 인용 표지가 나타나는 인용문을 만드는 데 익숙한 연령층은 80대이다. 50대의 경우는 방언형을 사용하더라도 문장 종류별로 하나의 종결어미로 중화하여 인용 표지를 결합한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20대 연령층의 경우 대체로 ‘표준어형’을 선호하지만 특히 평서문의 인용에서는 방언형이 결합된 형태도 적잖이 사용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 V. 결론

이 연구는 제주도 방언의 인용문이 표준어와 동일하게 간접화가 이뤄지지 않고 왜 다양한 인용 표지가 나타나는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제주도 방언 화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인용문을 찾아보았고 세대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제주도 방언은 제주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다. 사전 속의 언어가 아니라 실제 제주도에서 사용되는 제주도 방언을 조사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제주도 방언 분야에서 연구되었던 인용문과 인용 표지에 대해 그 형태들을 확인하였다. 우선 실제 제주도 방언 화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용문을 종류별로 추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외에도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중간 단계의 형태인 자유 인용을 설정하였다. 『제주어 구술 자료집』의 인용문을 추출하고 세 가지 인용 형태에서 피인용문, 인용 표지, 인용 동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세대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표준어와 달리 나타나는 제주도 방언의 인용 표지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었다. 다양한 종결어미에 인용 표지를 결합하는 데 익숙한 연령층은 80대이다. 50대의 경우는 방언형을 사용하더라도 문장 종류별로 하나의 종결어미로 중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20대 연령층의 경우 대체로 ‘표준어형’을 선호하지만 평서문의 인용에서는 방언형이 결합된 형태도 사용하고 있었다.

제주도 방언의 인용문의 특징을 다 보여주기에는 적은 예이지만 실제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인용문을 분석하였으며 세대별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는 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제주도 방언 화자의 실제 발화 속에서 더 많은 예를 찾아 가설을 검증하는, 보다 깊은 연구는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강정희, 「제주방언의 인용문 연구-피인용문의 문장어미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4, 이화여대 이화어문학회, 1981.
- 고영진, 『제주 방언의 인용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84.
- 김미진, 「제주 방언의 인용 표지 연구」, 『영주어문』 41, 영주어문학회, 2019.
- 김수태, 『우리말 인용월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1997.
- 김지홍, 「제주 방언의 인용 구문과 매개변항」, 한글 80권 제4호, 한글학회, 2019.
- 남기심,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73.
- 문숙영, 「한국어 문법 연구와 방언 문법」, 『방언학』 16, 한국방언학회, 2012.
- 성낙수, 「제주도 방언의 간접인용문 연구」, 『서원대학논문집』 9, 서원대학교, 1980.
- 안귀남, 「경북방언의 간접인용문 연구」, 『언어과학연구』 42집, 언어과학회, 2007.
- 이금희,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된 어미, 조사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5.
- 이기갑,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2003.
- 이필영,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탐출판사, 1993.
- 정승철, 「제주도 방언 어미의 형태음소론-인용어미를 중심으로」, 『애산학보』 20집, 애산학회, 1997.
- 정화영, 『현대 한국어 구어 인용구문 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201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어 구술 자료집』 1~36, 2017~2020.
- 채숙희,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구어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11.
- 현평효, 강영봉(2011), 『제주어 조사, 어미 사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11.

## ABSTRACT

## A Study of quotation in Jeju Dialect

Kim, Mi-ji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usage patterns of quoted sentences in Jeju dialect and to figure out the process of its changes. A dialect is actual spoken language and has its meanings when used in real lif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actually used language in real life, not just the ones from dictionaries. In this study, the types of quoted sentences and quotation markers used in Jeju dialect get identified and their functions and usage patterns are going to get analyzed.

In actual speaking of Jeju dialect, there are various quoted sentences which can't be explained well in two different forms such as direct quotation and indirect quotation. Quoted sentences which have both characteristics of direct quotations quoting the quoted sentences like actual speaking and indirect quotations from quoting speakers' perspectives can be found. Such quotations were classified into free quotations.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reviewed. The preference for these types of citations seems to get triggered from the perspective they can deliver the quoters' words more effectively and at the same time keep objective distance from the quoted sentences. Historically, they has been called as quotation types in the middle considering the fact that direct quotations came first and then indirect quotations followed.

---

\* Senior Staff Researcher, Center for Jeju Studies.

Since quotations in Jeju dialect are colloquial, they are difficult in being distinguished into direct quotations and indirect quotations. In particular, the quotation marker seems to get combined to various sentence-closing endings directly without being abbreviated to neutral endings for each type of sentence. This kind of pattern is more distinguishable in Jeju dialect of the elderly. Existing Jeju dialect quotations which had different patterns depending on the closing endings seemed to have less diversity towards younger generations. The distinctive features of Jeju dialect are dying as it contacts and changes with other regional or standard languages. Such changes also can be found in quoted sentences.

Key-words: Jeju dialect, quotation, quotation marker, indirect quotation, direct quotation, free quotation, changes in each generation

논문투고일 2021. 5. 31.

심사완료일 2021. 7. 11.

게재확정일 2021. 7. 15.